

지퇴의 경험의 사회자원화

배경

-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의사 보건소장들이 지보의를 구성하고 정년시기 까지 다양한 공공의료 활동을 통해 지역보건의료?를 경험하였으나 정년은퇴 시기를 경과하는 동안에 그 경험이 충분히 축적·전달 못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음.

-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계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의료대란)과 새 정부의 국가보건의료체계 전체의 효율 향상의 장애를 혁파할 대책 마련(보건의료의 지방분권, 중앙정부중심에서 광역·권역, 국민중심으로,)에 지보의(지퇴의)의 공공의료 활동 경험이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음,

- 이러한 일의 진행에 지보의(지퇴의) 회원들의 역량 한계를 지보연 교수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그간 지보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해주었던 배상수 교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교수님들을 1차적으로 소개 받음,

내용

- 지역보건의료활동은 활동 참여 교수들의 보고서들과 이들을 근간으로 하여 예방의학 교과서 등('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1,2')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고 그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집단 또는 개인의 겪었던 어려움, 한계(역량부족?) 등에 대한 느낌들이 객관화?되지 못하였거나 성찰 되지 못하여 사회적 자원화 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 더구나 공공의료 영역 20-30여년 경력의 경험은 단순한 지역조건 사업 실천 과정을 넘어 지방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반응(저항), 사망과 상해를 동반한 재해 현장 수습, 지방행정 일반으로서의 보건의료행정, 지방 보건의료 예산과 재정, 예산확보와 유지, 지역보건의료자원들의 협력, 견제, 병원서비스의 질 관리, 의료분쟁, 건강권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유용성, 현황 등 성공과 실패를 통한 지방보건의료행정의 다이나미즘 관찰 가능할 것,

- 이러한 경험들이 각 지역 교수님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객관화 되어 사회자원화 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보건의료 지방분권의 구체적 전략 모색, 공공의료영역 종사자 양성 과정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방법

- 2-3년 작업 과정이라도 좋다고 생각함,
- 지퇴의 대표들과 찬성 교수님들과 구체적 실천 방법(학회의 세션, 수회에 걸친 집중토론, 세미나, 등) 토의 기회 바람

지퇴의 상황

- 지보의 결성 활동 후 정년을 맞이할 즈음에 이르기 까지 활동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미흡,
- 후배 보건소장들에 대한 사회자원화 된 경험 공유 과정 조직화 하지 못함에 대한 인식을 최근 하게 됨, (7 명중 4명 정도, 찬성하였으나 실인원 15인 정도 순차적 참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수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7.5 지보의 모임에서 확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정

- 식사비 등 소정의 예산 부담 가능함.